

식품 성공기

스마트팜 창업, 우리나라 농업기술 세계화에 인생을 걸었다!

전 요 한

그린엑스엑스

인생의 전환점에 적절한 시기나
나이가 있을까?

물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꿈꾸는 그 순간에 최대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 2년 전, 한 달간의 도전이 끝나고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던 터닝 포인트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귀중한 경험을 한 뒤에 찾아왔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니 늘 가슴속으로만 생각했던 창업에 대한 열망을 너무 쉽게 이뤄낼 수 있었다.

내 나이 서른이 되던 2019년 12월, 친구와 단들이 혹독한 겨울 바다에 목숨을 건 요트 세일링을 시작했다. 무모한 도전일 수 있었으나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드라마를 그리며 살고 있다. 그 드라마의 스케일을 최대한 키우면서 사는 것이 젊은 날 나의 목표였고 점차 차별화되는 목표를 그리며 살다 보니 아프리카로 1년 연구원 생활을 다녀오기도 하고, 바다로 나가서 한 달 목숨 건 항해를 해보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뭐라고 대한민국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창업까지 하게 되었다.

항해 중 최대한 무동력을 지향하며 자연 그대로의 힘을 활용하여 속초부터 히타카즈항까지 한 달간에 걸쳐 세일링에 성공했다. 중간에 트롤링낚시로 참치와 방어를 잡기도 하며 짜릿한 성공을 맛보기도 했었다.

창업 시작 후 아직 제품 개발단계여서 큰 매출은 없지

만, 프로젝트 성공 시 이전 경험과 같은 짜릿함을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두근두근한다.

어린 시절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농업대학에 진학했으며, 농대 졸업 후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에 참여해 1년 동안 짐바브웨에서 한국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왔다.

한국에 돌아온 직후 마음을 다잡고 스마트팜 분야 창업을 위해 약 3년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1기 수료와 농업법인 경영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고 실력을 길렀으며, 곧 서른 기점에서 ‘나도 훌륭한 창업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겨울 바다 항해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했더니 창업은 너무 쉽게 성공하게 되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등 5번도 넘게 떨어지며 도전했고 결국 예비창업패키지 합격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10번은 찍어야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섯 번 만에 성공하다니!! 새삼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인간과 식물의 공존을 위한 프로젝트, 반려식물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그린엑스엑스의 대표로서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입교에 성공 후, 스마트팜 창업에 성공한 농업법인 그린몬스터즈의 공동대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속초-히타카즈항 세일링/ 트롤링으로 참치 잡기



▲ 전요한 씨는 농원에서 재배관리사로 일하며 최적화된 오이의 재배 매뉴얼을 찾고 있다.



전요한 교육생

교육기관 | JATC(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품 목 | 오이
현 황 | 농업회사법인에서 경영실습 중

청년, 농업의
미래를 찾아 나서다



2018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우수사례집 중

요즘은 부쩍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 않은가?

부모님께서 그걸 눈치채고 나에게 농업을 가르친 건 아닐 테지만 친구 한 명 없는 시골에서 자란 나는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어머니와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때 고구마, 감자, 참깨, 옥수수, 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했던 경험은 농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야 강력한 무기가 되어 빛을 발하고 있다.

문명에서 농업은 필수적이다. 나는 미래의 우리 식량을 위해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스무 살 때 시작된 이 꿈은 국내 수많은 농업 연수와 미국, 네덜란드 등의 해외 경험을 통해 농업에 대한 다양한 기초 지식을 쌓아왔으며,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띄워 주었다.

“나도 세계에 대한민국 농업의 힘을 알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문명이란 그냥 가만히 두어도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 그중에 리더가 되고 승리자가 되려면 누구보다 빨라야 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

그 찰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농업을 세계의 중심에 올려두는 것이며 이제 준비는 끝났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농업? 창업의 길?”, “필연으로 받아들였다.”

그린엑스엑스와 그린몬스터즈의 목표는 단순한 농사가 아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재배 전략에 따른 농가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스마트팜은 하늘의 뜻으로 짓는 농사를 사람의 영역으로 가져온 기술이다. ICT 기술을 접목해 생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제어하고 접목 가능한 가

공된 데이터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광량과 관수 등 온실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 여러 재배 전략을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 수확량을 극대화하는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분야 중 하나다.

그럼에도 30~50억 원 규모의 농장들은 현재 계속 탄생하고 있다. 다만 농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선진 농가인 유럽의 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하면 농사가 잘 되겠지.’, ‘자동으로 스마트폰이 재배해 주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 아쉽다.

환경제어시스템이 생육환경을 조절해 주는 건 맞지만, 작물은 재배자가 어떤 전략을 써서 기르냐에 따라 그 결과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 아무리 좋은 하이테크 온실을 가지고 있어도 작물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활용 방법을 모른다면 관행농을 떠날 수 없다.

고가의 온실을 짓는다고 무조건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 작물을 잘 이해하고 어떤 조건에서 작물이 잘 자라는지 살피는 노력이 데이터화까지 이어져야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이전에도 ‘감’, ‘느낌’, ‘경험’이라는 정성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선배 농업인 분들이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제는 정량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때이다.

2020년 전국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농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었다.

창업 전 경영 실습을 받던 중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에 테스트했던 재배 전략 방법으로 260%까지 수확량이 차이 나는 것을 보며 우리 농업기술에 반드시 데이터를 적용시켜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이를 농가의 수익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우수사례가 널리 홍보되면, 각 스마트팜에 농

어디에서 생산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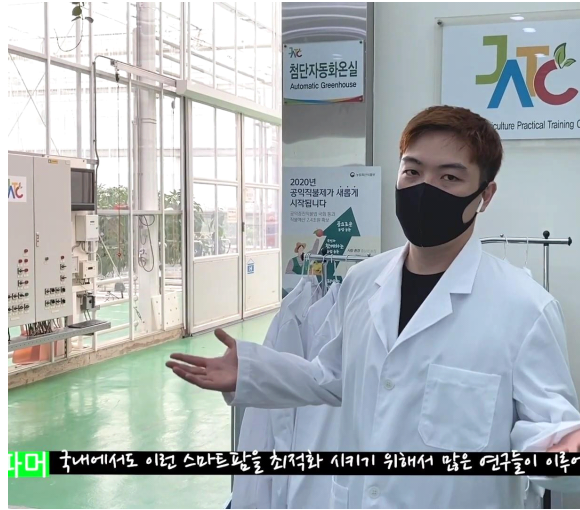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에서 그린몬스터즈를 만나보세요! 외부 기상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년 내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일조량 등을 컴퓨터로 자동제어하는 스마트팜에서 1년에 2달만 제외하고 오이가 매일매일 수확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농업법인 그린몬스터즈 설립



스마트팜 정보 공유를 위한 유튜브 채널 개설(채널명: 아임파머)

가의 능동적인 데이터 수집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국내 스마트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스마트팜 운영과 함께 데이터를 활용해 가정에서도 기를 수 있는 반려 식물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언젠가는 인류는 식물과 공존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며, 녹색식물은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형 스마트팜에서의 모든 기술을 집약시킨 우리 디바이스는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시제품이 개발, 완료되었다. 인공 광원과 양액 레시피의 기술을 가지고 인간과 식물 공존 농업기술의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LG전자 연구원 출신인 공동 대표님과 대학시절부터 창업에 성공한 디자이너 분과 스마트팜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부들과

팀을 이루고 있다.

재능 많은 위커홀릭 팀원들을 만나 몸은 좀 힘들지만 사업적으로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것인데 현재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플라즈마 태양 정도는 아니지만 광합성을 하는데 전혀 문제없을 정도의 작물을 위한 스펙트럼과 PPFD(광합성광량자속 밀도)를 이용할 수 있는 광원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수확량을 두 배까지만 끌어올려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넘었을 때, 식량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금도 뭐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큰 꿈을 좇지만 아직은 작은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